"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NEWSLETTER

연락처: 312-985-6050 kasanctuarychurch@gmail.com

〈제 2호〉

순서

- 위원 칼럼: 김판호 목사 시카고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시카고 순복음 교회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활동 소식
- 이민법 및 행정사항 업데이트
- 협력 기관 소식
- 인종주의 포럼: 〈교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위원 칼럼

아름다운 동행

김판호 목사 (순복음 시카고 교회 담임 및 시카고 교협 회장)

마음 나눌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Social Media의 발달로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과 24시간 연결되어 있지만, 우울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Social Media에서 보이는 타인의 삶을 부러워한 나머지 자존감 결여, 우울, 허탈감을 느끼는 Social Media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성별, 계층, 세대 갈등에서부터 국가와 민족 사이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매일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간절합니다.

여행에선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도 하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기나긴 인생의 여정에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기쁘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한 강의에는 ‘가죽구두 프로젝트’라는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지혜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타인의 신발을 신으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습관과 방법을 배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해 보다 깊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의 생각과 처지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유달리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 동족의 고혈을 빨아 자기 배를 불리는 세리에 대한 혐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그래서 주변 모든 이들에게 외면당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시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삭개오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소유를 사람들과 나누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의 외로움을 보고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그 손을 붙잡은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 편견, 이기심, 분노를 깨뜨리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로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 주위 사람의 삶을 살피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힘을 얻게 하고 그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아닐까요?

이민법 및 행정 업데이트

- 이민국(USCIS)
  1) 영주권카드 및 EAD(워크퍼밋) 카드 발급지연(예산부족)
  2) RFE(추가서류), NOID(거부의사), MTR(재심/재고신청) 제출기한(Due) 후 60일까지 유연하게 적용
  3) 8월 Visa Bulletin: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11/8/2017)
- DACA: 지난 6월 연방대법원 승소판결 후 7/28 이민국에서 신규신청거부입장과 연장신청시 기간을 현행2년에서 1년 축소방침발표
- 이민경찰(ICE) 학생신분유지: 7/6 100%온라인수업 학생신분유지 불가지침 => 7/14 연법법원 심리에서 지침철회 => 3/9 지침에 따르면 비자발급과 재입국을 위해서는 100% 온라인 수업이 아니어야 함
- 국무성(DOS) 미대사관: 7/15부터 순차적 업무개시 (한국 미대사관)

이민자 보호교회 활동소식

- **이민자보호교회 주관 서류미비 싱글맘 렌트비 지원**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뉴욕/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와 신나는 공동구매 협동조합과 함께 서류미비 싱글맘 렌트비를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는 일리노이 지역에서 한 가정을 선정하여 1년간 월 $500 씩 렌트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7월 25일 첫 번째 지원금을 발송 했다. 이보교는 계속 후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며 모금액에 따라 지원가정을 늘려갈 예정이다. 후원 참여 문의: 312-985-6050

- **트럼프 행정부 온라인 수업 전환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F-1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Q&A 제작**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학교의 가을학기가 100% 온라인으로 전환될시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발표. 이에 시카고 이보교는 학생들을 위한 Q&A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등을 필두로 단체소송이 진행되었고 행정부는 결국 본 발표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인 피해업체 지원관련 활동**

인종차별 반대 집회 후 일어난 약탈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카고 지역의 한인업체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모금활동이 종료되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인터넷 모금과 각 교회 후원금을 통해 총 $8,000에 달하는 기금을 모금하였고 전액 시카고 한인회에 위탁하여 피해한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이민자 보호교회 주관 반 인종차별 포럼**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는 8월 3일 월요일부터 주 1회 3주간 세 명의 강사 (이태후 목사, 그레이스 오 목사, 김성민 변호사)를 초대하여 미국사회와 시카고 내의 인종차별에 대한 역사와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인종화합을 위해 나아가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page 4 포스터 참고).

시카고 기관소식

하나센터

1.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현금 (Mutual Aid) 지원:
- 하나센터는 사립재단을 통해 모금한 금액을 이용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가정을 돕고 있음. 지원은 yhan@hanacenter.org 로 문의
2. 쿡카운티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이민변호사 부서 창설을 위한 캠페인
- 시카고 지역내 다른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와 함께 쿡카운티 국선변호사 사무실의 예산을 $250,000 늘려 형사법원에서 이민자 변호를 도와줄수 있는 부서를 창설하기 위해 활동 중.

KANWIN

1. KAN-WIN의 제8차 “위안부” 기림일 집회
- 08월 5일 (수)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위안부 정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슴.
2. 7월 18일 Share 1 Campaign 행사 H-Mart 앞에서 진행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쌀, 라면등 생필품을 기부받는 행사를 Niles H-Mart에서 성황리에 진행. H-Mart 관계자 및 기부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A VOICE

1. 청소년 서머 프로그램
- 온라인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DC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Grassroot 컨퍼런스는 일정 취소
2. 쿡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와 한인 투표의날 일정 조율 중: 코로나로 인해 한인 투표의날에 대해 논의

시카고이민자보호교회 포럼

A ZOOM Webinar

교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8월 3일~17일, 매주 월요일 저녁 7:30PM (동부 8:30PM)

8/3 미국 내 인종주의 (이태후 목사)

인종주의가 무엇이며, 미국 내 인종주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가에서 18년째 살며 사역하고 있는 이태후 목사의 시선으로 살펴본다.

8/10 시카고의 인종차별 현실과 연대 방안 (그레이스 오 목사)

시카고 남부 지역의 흑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레이스 오 목사를 통해 시카고의 인종차별 현실을 진단하고 한인 커뮤니티와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8/17 미국의 헌법과 인종주의 (김성민 변호사)

미국의 헌법에 담긴 인종주의 요소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어떻게 흑인들을 비롯한 소수 인종들이 차별당해 왔는지 김성민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듣는다.

등록 및 문의

https://bit.ly/antiracismkasanctuary

시카고이민자보호교회 312-985-6050
kasanctuarychurch@gmail.com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移民保护教会 Iglesia Santuario de Inmigrantes